

## 12지 이야기(12)

# 돼지 -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j8509@comcast.net

구대륙의 멧돼지가 약 2,000년 전부터 집짐승으로 길러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돼지다. 몸이 비대하여 동작이 느리고, 다리와 꼬리는 짧으며, 주둥이는 빠죽하다. 성장 속도가 빠르는데다가 고기 맛이 좋아 전 세계 식육 생산량의 40퍼센트가 돼지고기이고, 햄이나 베이컨은 세계적인 주식이 되었다.

우리 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은 쇠고기 소비량의 배가 넘는다. 서양 요리의 기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돼지고기 요리에는 마늘 올리브유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돼지는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다산의 상징이나 재물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동물이어서, 신 앞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믿었으며, 그 모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하면 사람들은 곧 지저분하고 미련하며 욕심 많은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동물을 두고 이처럼 모순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또 있던가. 알고보면 모두 불필요한 선입관이다.

돼지는 먼저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다. 사는 공간만 충분하면 자는 자리, 배설하는 자리를 반드시 구별한다. 미련한 짐

승도 아니다.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지각 능력도 개만큼 발달한다.

개보다 훨씬 더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송로 버섯을 찾는 데 돼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욕심 많은 동물도 아니다. 여럿이 한 우리에 들어사는 바람에 경쟁심이 생겨 먹이를 보면 허겁지겁 달겨들 뿐,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는 먹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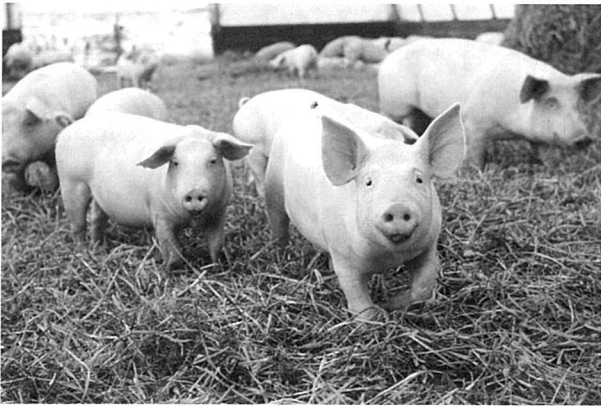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돼지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다. 사람 다음으로

위궤양의 발생률이 높다. 최근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돼지의 수정란이나 정자에 사람의 유전자를 넣는 방법으로 장기 이식용 돼지를 생산하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사람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모델로도 사용되며, 새로 개발되는 대부분의 약품은 돼지에서 실험을 거쳐야만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된다.

어렸을 적, 나는 돼지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버지는 반드시 머슴을 시켜 산에서 황토를 저다가 돼지우리 주위에 흙무더기 몇 개를 만들어 놓게 했고, 손수 짚으로 새끼를 꼬아 대문에 금줄을 쳐 두었다. 그 두 가지 일은 경험에서 나온 과학적인 조치였다.

금줄은 낫선 사람이 들어와 출산으로 예민해진 어미 돼지를 놀라게하거나 새끼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아주고, 황토는 하루가 달리 커가는 새끼들에게 성장에 절대 필요한 철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었다.

돼지는 잡식성이어서 풀이 많이 들어가는 사료로도 사육할 수 있다. 멧돼지는 나뭇잎 잡풀 뿌리 열매 꽃 등을 먹는다. 양돈장의 돼지는 옥수수 콩 비타민 광물질 등이 혼합된 사료를 먹는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수는 어느 때나 약 10억 마리로 추정된다. 그 중 5억 마리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양자강 하류에 있는 태호 주변에서는 옛날부터 태호 돼지라는 특유한 품종의 돼지가 사육되었다.

검은 색깔에다 체구가 크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다. 섬유질이 많은 거친 사료를 먹어도 잘 성장하며, 질병에 강하고, 한번에 평균 16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져다가 품종 개량이나 유전 공학의 연구 재료로 사용한다.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에게 쌀뜨물에 밀거나 보릿겨를 타 주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여 길렀다. 언제부턴가 부대에서 잠반으로 기른다. 자원의 재활용에 보탬이 되면서 식육 생산 이외에 여러 가지 부산물도 가져다 주는 동물이 되었다.

돼지고기는 사람의 몸에서 독물질을 제거해준다. 비계로는 비누를, 털로는 술을, 껍질로는 가죽을 만든다. 병천 순대는 기호품이고, 족발은 젓이 부족한 산모에게 고아 먹이는 약이다. 멧돼지는 사냥감이지만, 배불뚝이 월남돼지는 유순하고 조용하며 영리하고 사람의 말을 꽤 많이 알아듣는 애완 동물이다.

주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등을 긁어주면 발랑 누워 공처럼 구른다. 그래서 북미주에서는 한 마리에 수천 달러를 호가한다.

돼지띠의 사람은 순진하며 열정적이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불임성 좋고, 성낼 줄 모르며, 근심 걱정 없는 낙천적인 성격이다. 지나치게 사람이 좋고 정직하여 손해 보는 일도 흔하나, 재물 복이 많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목표를 세우면 위험하더라도 돌진하는 추진력을 발휘한다. 반면 우직하고 고집이 세다. 항상 무방비 상태여서 잘 속는다. 충동적이며 유혹에 약하고, 뻔뻔하다는 평을 받는다.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다룬다.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된 돼지는 품종도 여러 가지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화하여 긴 수염을 가진 멧돼지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얼굴에 사마귀처럼 생긴 혹을 단 흑돼지도 있다.

미국에는 유럽에서 수입하여 기르던 돼지가 우리를 탈출하여 야성을 되찾은 뒤 번식한, 수백 만 마리의 야생 돼지도 있다.

번식력이 엄청난 녀석들은 텍사스 주에 가장 많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인 주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매년 약 8백 만 불에 상당하는 재물의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을철에 멧돼지가 시가지에 나타나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며, 농작물을 해치거나 묘를 파헤친다.

남 앞에서 자기의 아들을 낳추어 돈이 概貲라 일컫기도 한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돌진하는 것은 저돌(獠突)이다. 요동시 遑遑하는 건문이 좁아 세상 일을 모르고 저 혼자 득의양양하는 것을 비유하거나, 식견이 좁아 제가 잘난 체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별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

